

사회생활의 경조사예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교육 요구연구  
-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udents' Recognitions of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Social Life and their Requirements for Education on Such Manners  
- Based on Four-Year Universities in Seoul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김은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최배영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Master* : Kim, Eun Kyum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Plural Professor* : Choi, Bae-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niversity students' view on the importance of attending rituals of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social lif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recognized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t also looked into the plans and content of education on such manners required by the students. The study aimed at seeking a direction for education on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acquire an appropriate conception of offering

\* 주저자 : 김은겸 (margaret5@hanmail.net)

\*\* 교신저자 : 최배영 (kb9112@hanmail.net)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and contribute to firmly establishing a sound culture of convey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study. 1. On a five-point scal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s of the importance of attending rituals of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were revealed as follows: attending condolence rituals(4.55) > attending wedding ceremonies(4.30) > visiting sick acquaintances(4.03) > attending birthday parties (3.50) > attending openings(3.47) > attending promotion or retirement parties(3.42). 2. On a five-point scal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s of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social life were as follows: the manners of attending condolence rituals(4.20) > the manners of attending wedding ceremonies(4.06) > the manners of attending promotion or retirement parties(3.9) > the manners of attending openings(3.80) > the manners of attending birthday parties(3.69) > the manners of visiting sick acquaintances(3.44). 3. On a five-point scale, university students' requirements for the content of education on the manners of conveying congratulation and condolence were as follows: education on the manners of attending condolence rituals(4.08) > education on the manners of visiting sick acquaintances(3.35) > education on the manners of attending wedding ceremonies(3.27) > education on the manners of attending promotion and retirement parties(2.96) > education on the manners of attending birthday parties(2.91) > education on the manners of attending openings(2.91). 4. On a five-point scale, university students' requirements for the plan for education on the manners of conveying congratulation and condolence were as follows: 'The education content should be applicable in real life'(4.42) > 'The education content should be easily understandable'(4.23) > 'Information or materials related to the education content should be easily accessible'(4.01) > 'The theory and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should be taught in parallel'(3.96) > 'Education related materials should be utilized'(3.92) > 'Students' demands should be reflected when structuring the content of education'(3.91). 5.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s of the importance of attending rituals of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their recognitions of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and their demands regarding such manners. According to the results, a static relationship was found in all sub-areas, indicating students show higher recognition of practicing manners of convey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as they have higher recognition of attending rituals of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social life. In addition, higher recognition of practicing manners of convey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made them demand more for the necessity of plan and content of education on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in university.

**Key Words :** 경조사(rituals of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경조사예절(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경조사예절 인식(recognitions of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경조사예절교육 요구(requirements for education on the manners of offering congratulation or condolence)

## I. 서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 규범, 도덕, 신념 등을 내면화하고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해가게 된다. 이 같은 성장과정의 하나로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겪게 되는 慶弔事 역시 타인과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相扶相助의 경조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예절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물질주의의 확대, 디지털산업의 빠른 전파, 문화의 상업화 등은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모를 가져왔으며, 생활문화의 일환으로서 경조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집약해보면 첫째, 경조사에서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측면은 점차 약화되고 그 의의와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경조사의 의식절차에 내재된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정신문화의 측면은 상실되고 사교문화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어 경조사 소식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행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둘째, 본래의 의미나 취지에서 벗어나 허례허식이나 체면의식에 편승한 경조사문화로 인해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사실상 가족친척관계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에 있어 직장이나 동창회 등은 경조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례(김영숙, 1996: 9-10)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조사 참석 상황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들게 하고 있다.

통계청(2007)의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당 월평균 경조비는 2000년 31,192

원, 2001년 34,039원, 2002년 33,469원, 2003년 35,342원, 2004년 35,085원, 2005년 38,050원, 2006년 42,345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2007)는 기존에 경조비로 3만원 정도를 내던 것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 5만원을 하게 된 경조비 인플레이션도 경조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생활취업 포털 파이드 잡과 온라인 리서치 엠브레인(2007)이 1,354명의 직장인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경조사비를 내는 문화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98명인 66.3%가 찬성을, 456명인 33.7%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단, 찬성하는 이들 중에는 경조사비 문화는 좋지만 그 액수는 축소되었으면 한다는(297명)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직장인들의 경조사비 갈등은 금액에서 시작되어 자신이 낸 부조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생각과 더불어 체면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옆 사람을 따라 부조금 액수를 정하게 되고 대개 봉투에 넣는 액수로는 5만원선이 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1999년 2월 정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해볼 때 의례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도모하는 것은 경조사의 의의와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의식변화와 실천을 향한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특히 경조사는 주로 성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의례이므로 앞으로 한 가정의 가족원으로서,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조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경조사문화 정착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경조사문화와 그에 관련된 예절을 알아가는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해서는 물론 공동체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의 배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연구들에서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가정의례에 대한 인식, 의례교육의 경험과 요구에 대한 분석(김시월, 1996; 이정우·김연화, 1996; 정지영 외, 1996; 임혜경·정지영, 1997; 김희경, 1999; 엄문자·류미현, 2000; 김혜연·김미성, 2001; 정은선, 2005; 엄문자·류미현, 2006; 장철선, 2007)이 주가 되어 와서 이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직장관계, 사회관계 등에서 필요한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에 대한 견해와 경조사예절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경조사예절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경조사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고 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들을 위한 경조사예절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조사예절의 의의

慶弔事란 사전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의미한다. 경조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으로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며, 슬픈

일이 생기면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울 때 돕고 서로를 아끼는 相扶相助의 모습은 한국적인 美가 담긴 고유의 풍습이며, 공동운명체의 발로이다.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나타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은 오늘날까지 서로를 돕는 미덕으로 지속(김영숙, 1996: 1)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경조사문화인 셈이다.

경조사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져왔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는 경조사에 혼인식, 백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장례식을 포함하였으며, 김혜연과 김미성(2001)은 혼인식, 백일/돌잔치, 집들이, 회갑/칠순잔치, 장례식, 기타(개업, 병문안 등의 행사)를 경조사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엄문자와 류미현(2002)은 경조사를 신년인사, 출산, 생일, 크리스마스, 약혼과 결혼, 문병, 문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김혜영과 최인려(2006)는 경조사의 범위를 혼인, 생일/수연, 개업, 퇴임, 승진/영전, 문병, 문상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의 다양한 사회구조는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개인들이 사회인으로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방식이 있는데 이를 예절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예절은 자신이 지닌 능력의 일부분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예절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예절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기초로 행동이 이행된다(엄문자·류미현, 2002: 15-20).

인간생활에는 경사와 조사가 번갈아가며 나

타난다. 축하하고 위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임과 동시에 후일 자신의 경조사에도 축하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친밀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 사회의 생활예절로서 경조사에 참석하여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경조사예절(김세환, 2003; 차석빈·허윤정, 2003; 이정학 외, 2006) 혹은 경조사매너(채용식 외, 2001; 엄문자·류미현, 2002; 임송국·김선애, 2006; 하진영·오선영, 2007; 유진그룹인력개발팀, 2007)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러한 경조사예절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규범적 성격을 띤다.

경조사예절이 행해지는 상황을 구분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직장 내외의 축하(혼인, 생일/수연, 개업, 승진/퇴임)와 위로(문병, 문상)의 경조사 참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최배영, 2002; 도영태·김순희, 2005; 磯田裕子, 2005; 김혜영·최인려, 2006). 첫째, 축하의 상황으로 직장 동료나 선후배가 혼인을 하게 되면 예식에 참석하여 혼인당사자와 그 부모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축의금이나 선물로 부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일/수연의 축하로는 직장 내 동료의 생일, 후배의 아기 돌잔치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상사나 동료의 부모님이 맞이한 칠순, 팔순 등의 수연에 초대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업무관계로 만나는 손님 혹은 거래처 지인 등이 사무실이나 상점을 개업하는 경우 이를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하게 된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상사, 선배 혹은 동료가 승진을 하거나 퇴임을 하게 되면 그간의 노고를 기리고 성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다. 둘째, 위로의 상황으로 직장상사나 동료가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될 때 그를 방문하여 위

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함께 한 사람들이 보탬이 되고자 성의를 모으게 된다. 또한 직장상사나 선후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가 혹은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서 돌아가신 분께 예를 올리고, 상주를 위로한 후 조의금으로 부조를 한다.

## 2. 경조사예절교육의 필요성

현대인에게 있어 인적 자원의 하나인 예절에 대한 습득은 사회생활의 경조사문화 영위의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예절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그것은 교육이 맡아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이영금, 2005: 8).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급급했던 기성세대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간 문화지체로 인하여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예절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교육수준이 신분상승과 출세로 이어지는 교육제도 하에서는 예절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등한시되기도 하는 예절교육은 이제 청년기 대학생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로써 다시금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동안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예절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습관화하는 교육은 매우 중대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장차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미래에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학문적 발전 및 계승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학생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을 가다듬어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예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이정우·김연화, 1996: 4). 국가적으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에 예절교육이 그 일방안으로써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하게 될 경조사에 관련하여 규범과 예절을 교육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도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함은 물론 원만한 관계형성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향을 이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을 중심으로 생활예절 관련 교양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생활예절교육이 일부 대학으로 그치고 있는 점은 그것이 대학생 이전의 시기에 매듭지어졌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그와 같은 교육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겨 대학에서의 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지영 외, 1996: 311). 그러나 예절교육이 대학생 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실정과는 달리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미약한 인성교육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예절의식과 생활예절 실천을 연구한 김선주(1997)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직장인들이 경조사예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경조사예절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교육의 시기에 있어 교점이 될 수 있다.

김재식(2002)은 현대는 어느 때보다도 매너에 관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가정이 자녀들에게 매너를 가르칠 여유시간을 가질 수 없게 변화된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현실세계로 진입할 때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쳐온 사실과 개념은 물론 무엇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가정환경과의 관계보다는 예절교육에 있어 학교의 영향력이 커진다(임혜경·정지영, 1997: 13)는 견해도 있다. 예절의 본질은 공동체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다. 대학생들이 예절의 근본정신을 일깨우면서 시민사회, 국제사회에서 올바르게 자신을 적응, 관리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다가올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조사예

<표 1>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의 생활예절 관련 교양교과목

학교명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와 예절	2(2)	선택교양
	비즈니스 예절	2(2)	선택교양
고려대학교	생활문화와 국제예절	3(3)	선택교양
국민대학교	전통생활문화체험하기	3(3)	교양선택
동덕여자대학교	인간관계와 생활예절	3(3)	교양선택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이미지 메이킹	3(3)	핵심균형 교양
	예절교육 및 실습	2(2)	일반교양
성신여자대학교	비즈니스와 생활예절	3(3)	교양선택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과 직업생활예절	3(3)	교양핵심 영역
	생활문화와 국제예절실습	3(6)	교양일반 영역
중앙대학교	글로벌에티켓과 셀프스타일링	2(2)	선택교양
한양대학교	현대사회인의 예절	2(2)	선택교양

자료: 본 연구자가 2007년 각 대학교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강의시간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임.

절을 습득하게 하여 원만한 직업인과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정우·김연화, 1998: 164-165).

한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의 정화를 위한 면에서도 예절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김희경, 1999: 40). 허례허식이나 체면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경조사문화와 경조사예절을 바르게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경험의 장을 다양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성인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부여 받는다고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조사예절 교육은 큰 의의를 지닌다(엄문자·류미현, 2006: 38). 이상과 같이 대학생 개인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조사예절교육은 올곧은 이해와 성숙한 실천을 추구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선행연구

#### 1) 경조사 참석 및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조사 참석 인식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므로 성인남녀들의 경조사 참석 및 경조비 인식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조사 참석에 대한 인식 연구로 김시월(1996)이 서울 시민들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경조사 참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1.6%, 계승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1.2%로 경조사 참석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들의 경조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김혜연과 김미성(2001)의 연구에서는 큰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경조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약간 부정적이었으며, 경조비를 제도적으로라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경조비 지출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왜곡되어 역기능이 나타난 데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였다. 혼례와 상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경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엄문자와 류미현(2006)은 경조사에 관련된 지식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38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들의 경조사 지식수준을 정도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집단이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하집단 36.7%, 상집단 22.9%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앞으로 실제 경조사 참석에서 곤란을 경험하게 될 우려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경조사예절 인식에 대한 연구로 정지영 등(1996)은 대학생의 예절생활에 관한 의식수준을 6개의 하위영역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생활(32.73점), 가족생활(30.96점), 의례생활(30.86점), 식생활(30.84점), 의생활(29.98점), 수신생활(28.12점)의 순으로 나타나 의례생활영역에 대한 의식은 6개 하위영역 가운데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을 분석한 김희경(1999)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수신예절(4.32점), 대인관계예절(3.90점), 가정의례예절(3.54점)의 순을 보였다. 이렇듯 가정의례예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식수준을 보이는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정의례예절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의례예절은 수신예절이나 대인관계예절보다 학교교육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김재식(2002)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 관련된 15개 항목을 선정하여 중요도 인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조사 관련 매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과거 가정에서 매너를 자연스럽게 익힐 기회가 많았던 것에 비해 현대와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가정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학에서는 교양 및 관련 전공 교과에서 매너에 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논의하였다.

2) 경조사예절교육에 대한 요구

임혜경과 정지영(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스스로 예절이 부족하여 고쳐야 한다고 인지하는 정도는 의례생활예절(5점 만점에 평균 3.30점)이 수신예절(2.98점), 식생활예절(2.97점), 가족생활예절(2.95점), 사회생활예절(2.93점), 의생활예절(2.8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은선(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미혼남녀들의 89.0%가 의례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희망하는 교육장소로는 학교(49.0%), 가정(27.3%), 문화센터(14.8%), 종교기관(5.9%), 직장(1.8%), 기타(1.3%)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에 향후 우리 사회의 미혼남녀들이 의례문화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인식을 갖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장철선(2007)은 대학생의 예절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세부영역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례교육영역에서는 5점 만점에 상례(3.57점), 혼례(3.52점), 생일의례(3.25점)의 순으로 교육요구가 반영되었다. 또한 예절교육 방안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실생활에서의 교육내용의 유용성(3.94점), 교육내용 이해의 용이성(3.92점),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학생의 요구 반영(3.84점), 이론과 실습의 수업 병행(3.70점), 교육 관련매체의 제공(3.60점), 관련자료 습득의 용이성(3.47

점)의 순으로 높은 요구정도를 나타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경조사 참석 및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및 방안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 경조사예절교육 요구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임의로 표집 하였다.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0부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N	%
성별	남학생	275	61.1
	여학생	175	38.9
학년	3학년이하	174	38.7
	4학년	276	61.3
전공	인문·사회	328	72.9
	자연·예체능	122	27.1
희망직종	서비스직	39	8.7
	사무직	153	34.0
	전문기술직	182	40.4
	교육연구직	76	16.9
집안 내 경조사 참여	대체로 참석하는 편이다	360	80.0
	대체로 참석하지 않는 편이다	90	20.0
전 체		450	100.0



질문지를 배포하여 470부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한 20부를 제외하고 45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 3. 조사도구

대학생의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혜연과 김미성(2001), 엄문자와 류미현(2006)의 연구를 토대로 6문항의 척도를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경조사 참석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8이었다. 또한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에 대한 대학생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경조사 참석 이유, 경조사 참석 결정시 고려요소, 경조사 참석 시 경조비 지출의 고려요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지영 외(1996), 정은선(2005)의 연구를 참고로 12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수행해야 되는 경조사예절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7이었다.

대학생의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의 요구도 파악은 임혜경과 정지영(1997), 장철선(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6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척도에 제시된 교육내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이었다. 또한 대학생의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은선(2005), 장철선(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6문항의

척도를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척도에 제시된 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5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4.0을 이용하여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경조사 참석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으며,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과 경조사예절 인식의 정도, 경조사예절교육의 내용 및 방안의 요구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 경조사예절교육 요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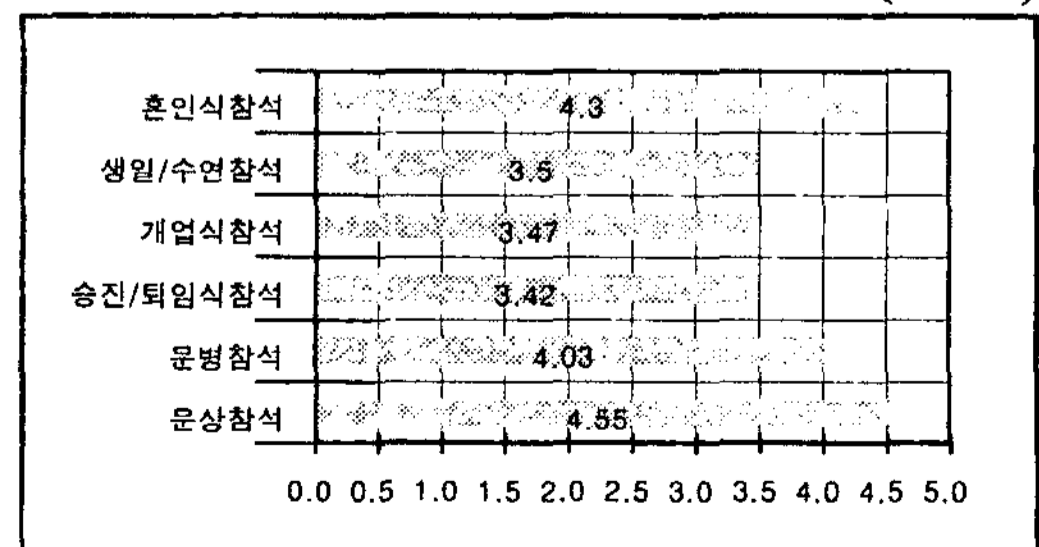
### 1. 경조사 참석 및 경조사예절 인식

#### 1) 경조사 참석에 대한 중요성 인식

조사대상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을 살

<그림 1>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N=450)



퍼본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88 점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에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문상 참석(4.55점) > 혼인식 참석(4.30점) > 문병 참석(4.03점) > 생일/수연 참석(3.50점) > 개업식 참석(3.47점) > 승진/퇴임식 참석(3.42점)의 순으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세대의 성인남녀들이 경조사 참석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한 김시월(1996)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 역시 경조사 참석을 사회생활문화의 하나로 지속시켜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문상, 혼인식, 문병, 생일/수연, 개업식, 승진/

퇴임식의 순으로 참석의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혼례, 상례와 같이 큰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에 돕는 것을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여긴다고 하는 김혜연과 김미성(2001)의 견해를 일부 지지하는 점이다. 한편 배경변인별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사회생활에 있어 생일/수연 참석의 중요성은 향후 희망직종이 서비스직·교육연구직·사무직인 집단에서, 승진/퇴임식 참석의 중요성은 희망직종이 사무직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문상 참석의 중요성은 남학생집단과 집안내 경조사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표 3> 배경변인별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배경변인		빈도	혼인식 참석		생일/수연 참석		개업식 참석		승진/퇴임식 참석		문병 참석		문상 참석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	275	43.3	.63	3.47	.82	3.46	.77	3.39	.90	4.05	.75	4.61	.61
	여학생	175	4.26	.60	3.54	.73	3.48	.74	3.47	.84	3.99	.70	4.46	.61
	t값		t=1.370		t=.938		t=.061		t=1.002		t=.567		t=7.126**	
학년	3학년이하	174	4.29	.62	3.51	.77	3.51	.77	3.46	.84	4.05	.75	4.50	.66
	4학년	276	4.31	.62	3.49	.80	3.45	.75	3.39	.91	4.01	.71	4.59	.58
	t값		t=.118		t=.029		t=.670		t=.686		t=.199		t=2.147	
전공	인문·사회	328	4.31	.63	3.49	.79	3.46	.76	3.42	.88	4.01	.76	4.55	.63
	자연·예체능	122	4.27	.60	3.52	.78	3.50	.76	3.43	.87	4.07	.63	4.57	.56
	t값		t=.379		t=.093		t=.281		t=.032		t=.478		t=.185	
희망직종	서비스직	39	4.36	.58	3.59A	.78	3.51	.94	3.38B	.96	4.26	.71	4.64	.54
	사무직	153	4.38	.60	3.58A	.75	3.56	.75	3.59A	.93	4.00	.78	4.61	.55
	전문기술직	182	4.20	.64	3.37B	.81	3.37	.81	3.30B	.79	3.99	.72	4.50	.66
	교육연구직	76	4.34	.62	3.59A	.79	3.49	.76	3.41AB	.90	4.04	.62	4.51	.64
	F값		F=2.568		F=2.797*		F=1.581		F=3.123*		F=1.496		F=1.339	
집안내 경조사 참여	대체로참석	360	4.32	.61	3.52	.77	3.48	.75	3.45	.88	4.04	.74	4.59	.60
	대체로 참석 안함	90	4.22	.67	3.42	.85	3.41	.79	3.31	.86	3.97	.69	4.41	.63
	t값		t=1.774		t=1.035		t=.653		t=1.796		t=.765		t=6.107*	

\*p<.05, \*\*p<.01 (A,B에 대한 표기는 Duncan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임)

2) 경조사 참석에 대한 견해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에 대한 대학생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와 같이 사회생활의 영위 가운데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는 견해에 4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가 33.3%, ‘상부상조의 일환이기 때문이다’가 17.8%로 분석되었다. 경조사 참석 결정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친소관계의 정도에 따라 참석할 것이다’가 91.1%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시간적 여유 정도에 따라 참석할 것이다’는 8.9%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지출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는 ‘친소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62.2%, ‘본인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한다’ 25.8%,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12.0%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4〉 경조사 참석에 대한 견해

구 분		N	%
경조사 참석 이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이다	220	48.9
	상부상조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80	17.8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150	33.3
경조사 참석 결정 시 고려요소	친소관계 정도에 따라 참석할 것이다	410	91.1
	시간적 여유정도에 따라 참석할 것이다	40	8.9
경조사비 지출 시 고려요소	친소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280	62.2
	본인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한다	116	25.8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54	12.0
전 체		450	100.0

이상을 보면 사회생활 가운데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상부상조나 인간적인 도리로 인식되는 것과 더불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차원으로서도 인식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경조사문화가 상부상조와 인간적인 도리를 내재하고 있음을 물론 폭넓은 인간관계 내에서 자기관리의 차원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근본 정신이나 마음가짐 보다는 격식이나 외형을 우선하게 되는 우려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격식이 조화를 이루는 경조사 참석의 본질에 대한 교육적 환기가 요구된다. 한편 경조사 참석여부를 결정하거나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의 고려요소로 친소관계의 정도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점 역시 교육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관계별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관계의 경우 그냥 알고 지내는 상사, 동료, 후배(평균 26,971원)에 비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외부인사(평균 30,452원)에게 더 많은 경조비가 지출된다고 한다. 즉 친소관계의 실리적 중요정도에 따라 경조사비 지출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의 경조사비 지출은 제도적으로라도 축소되어 자신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김영숙, 1996; 김혜연·김미성, 2001)는 개선의 변화 노력을 주장하는 견해와는 다소 상반되는 일면이다. 본 조사의 경우 경조사비 지출시 본인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우리 대학생들이 친소관계에만 얽매어 형식적인 경조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경조비 관행(박명숙·류정순, 1998: 15)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성의를 담아 자신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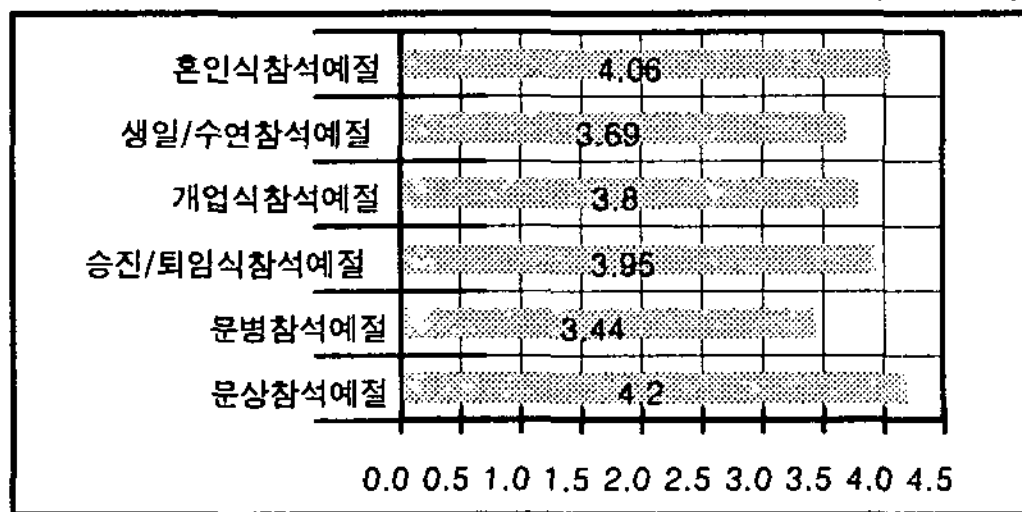
3)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 시 수행하게 되는 예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86점을 나타냈다. <그림 2>에 제시된 하위영역별로는 문

상 참석예절(4.20점) > 혼인식 참석예절(4.06점) > 승진/퇴임식 참석예절(3.95점) > 개업식 참석예절(3.80점) > 생일/수연 참석예절(3.69점) > 문병 참석예절(3.44점)의 순이었다. 이를 보면 대학생의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수준은 선행연구들(정지영 외, 1996; 김희경, 1999; 김재식, 2002)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상 참석예절, 혼인식 참석예절, 승진/퇴임식 참석예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간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인식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경조사 참석에서 곤란에 직면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는 엄문자와 류미현(2006)의 견해를 상기하게 된다. 이제 대학에서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경조사예절에 있어 각 영역별로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보다 향상

<그림 2>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

(N=450)



<표 5> 배경변인별 경조사예절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	빈도	혼인식 참석예절		생일/수연 참석예절		개업식 참석예절		승진/퇴임식 참석예절		문병 참석예절		문상 참석예절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	275	4.05	.57	3.64	.68	3.79	.61	3.96	.63	3.41	.68	4.25	.59
	여학생	175	4.09	.57	3.78	.60	3.81	.60	3.92	.65	3.48	.62	4.13	.66
	t값		t=.582		t=5.151*		t=.073		t=.479		t=1.398		t=4.318*	
학년	3학년이하	174	4.05	.59	3.67	.66	3.80	.55	3.95	.60	3.42	.65	4.15	.63
	4학년	276	4.07	.56	3.70	.66	3.79	.64	3.94	.66	3.45	.67	4.24	.61
	t값		t=.165		t=.188		t=.025		t=.018		t=.131		t=2.239	
전공	인문·사회	328	4.08	.59	3.71	.62	3.81	.61	3.95	.64	3.43	.65	4.24	.59
	자연·예체능	122	4.04	.53	3.65	.74	3.77	.59	3.95	.64	3.45	.68	4.11	.68
	t값		t=.417		t=.773		t=.367		t=.002		t=.127		t=4.200*	
희망직종	서비스직	39	4.15	.61	3.86	.70	3.74	.69	4.05	.64	3.59	.67	4.28	.59
	사무직	153	4.09	.56	3.63	.59	3.83	.60	3.97	.67	3.41	.66	4.29	.62
	전문기술직	182	4.00	.58	3.65	.70	3.79	.54	3.91	.60	3.41	.65	4.16	.60
	교육연구직	76	4.13	.56	3.82	.65	3.77	.71	3.95	.65	3.47	.70	4.09	.67
	F값		F=1.614		F=2.490		F=.334		F=.629		F=.908		F=2.217	
집안내 경조사 참여	대체로참석	360	4.10	.60	3.72	.63	3.80	.60	3.95	.64	3.45	.68	4.26	.60
	대체로 참석 안함	90	3.93	.61	3.58	.75	3.81	.62	3.94	.62	3.39	.58	4.00	.67
	t값		t=6.041*		t=3.100		t=.014		t=.005		t=.586		t=12.540***	

\*p<.05, \*\*\*p<.001

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앞서 제시한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 볼 때 일부에서는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 경조사예절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혹은 그 반대되는 상황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과 경조사예절 인식 간 차이는 교육을 통해 좁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배경변인에 따른 경조사예절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5 참조) 혼인식 참석예절은 집안 내 경조사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생일/수연 참석예절은 여학생 집단에서, 문상 참석예절은 남학생집단, 인문·사회전공집단, 집안 내 경조사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반영하였다. 이 중 혼인식과 문상 참석예절 인식에 집안 내 경조사 참여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

내 경조사 참여경험이 미래의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경조사 참석과 그에 따른 경조사예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가족생활의 변화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생활예절 특히 경조사예절을 배울 기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정우·김연화, 1996; 김희경, 1999; 김재식, 2002)의 견해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가정과 더

〈표 6〉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의 요구

(N=450)

구분	M	SD	순위
문상 참석예절교육	4.08	.88	1
문병 참석예절교육	3.35	.97	2
혼인식 참석예절교육	3.27	.94	3
승진/퇴임식 참석예절교육	2.96	.88	4
생일/수연 참석예절교육	2.91	.89	5
개업식 참석예절교육	2.82	.86	6
전체	3.23	.72	

〈표 7〉 배경변인별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의 요구

배경변인	빈도	혼인식 참석예절 교육		생일/수연 참석예절 교육		개업식 참석예절 교육		승진/퇴임식 참석예절 교육		문병 참석예절 교육		문상 참석예절 교육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	275	3.30	.98	2.92	.89	2.83	.89	2.92	.90	3.31	1.02	4.08	.92
	여학생	175	3.23	.88	2.90	.89	2.81	.82	3.02	.85	3.42	.89	4.07	.84
	t값		t=.495		t=.039		t=.045		t=1.295		t=1.322		t=0.044	
학년	3학년이하	174	3.22	.90	2.88	.83	2.80	.79	2.92	.82	3.37	.94	4.17	.81
	4학년	276	3.31	.96	2.93	.93	2.83	.90	2.98	.92	3.34	.99	4.02	.93
	t값		t=.972		t=.412		t=.119		t=.531		t=.084		t=2.853	
전공	인문·사회	328	3.25	.95	2.86	.90	2.76	.85	2.90	.89	3.32	.99	4.10	.88
	자연·예체능	122	3.34	.90	3.05	.87	2.99	.87	3.12	.84	3.43	.92	4.02	.91
	t값		t=.748		t=3.903*		t=6.595*		t=5.919*		t=.999		t=.600	
희망직종	서비스직	39	3.23	1.01	3.00	.97	2.95	.97	3.15	1.01	3.41	1.09	3.92	1.11
	사무직	153	3.23	.89	2.84	.82	2.74	.85	2.84	.84	3.32	.90	4.10	.88
	전문기술직	182	3.28	.92	2.94	.83	2.87	.80	2.97	.86	3.35	.94	4.06	.85
	교육연구직	76	3.37	1.03	2.95	1.11	2.82	.95	3.05	.95	3.38	1.13	4.16	.88
	F값		F=.404		F=.526		F=.939		F=1.819		F=.124		F=.649	
집안내 경조사 참여	대체로참석	360	3.32	.94	2.94	.89	2.84	.87	2.98	.89	3.37	.97	4.13	.87
	대체로 참석 안함	90	3.08	.91	2.81	.91	2.77	.84	2.89	.85	3.28	.98	3.86	.92
	t값		t=4.379*		t=1.478		t=.469		t=.684		t=.639		t=7.137**	

\*p<.05, \*\*p<.01

불어 학생들을 위한 경조사 참석 관련 예절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으로 경조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들(정은선, 2005; 엄문자·류미현, 2006, 장철선, 2007)의 결과와 부분적

2.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및 방안 요구

1)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대학생의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을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는 문상 참석예절교육(4.08점) > 문병 참석예절교육(3.35점) > 혼인식 참석예절교육(3.27점) > 승진/퇴임식 참석예절교육(2.96점) > 생일/수연 참석예절교육(2.91점) > 개업식 참석예절교육(2.82점)의 순이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의례문화교육내지는 예절교육의 일환

<표 8>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의 요구

(N=450)			
구분	M	SD	순위
교육내용은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4.42	1.07	1
교육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4.23	.62	2
교육내용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4.01	.69	3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3.96	.88	4
교육 관련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	3.92	.82	5
교육내용 구성에는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3.91	.84	6
전체	4.08	.50	

<표 9> 배경변인별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의 요구

배경변인	빈도	실제상황에 적용가능성		교육내용 이해의 용이성		학생들의 요구반영		이론과 실습 수업병행		관련매체 활용		정보/자료 습득용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	275	4.40	1.29	4.21	.68	3.81	.88	3.93	.93	3.87	.88	3.96	.75
	여학생	175	4.39	.56	4.27	.53	4.07	.75	4.01	.81	4.01	.70	4.09	.58
	t값		t=248		t=1.236		t=10.920**		t=.888		t=2.848		t=4.084*	
학년	3학년이하	174	4.46	1.54	4.21	.68	3.85	.87	3.92	.97	3.79	.81	3.93	.70
	4학년	276	4.39	.60	4.25	.59	3.95	.82	3.99	.82	4.01	.81	4.06	.68
	t값		t=.393		t=.312		t=1.458		t=.662		t=7.444**		t=3.596	
전공	인문·사회	328	4.37	.61	4.22	.60	3.88	.86	3.97	.85	3.90	.78	3.98	.68
	자연·예체능	122	4.54	.79	4.28	.67	3.98	.80	3.93	.96	3.98	.91	4.07	.73
	t값		t=2.156		t=.886		t=1.233		t=.165		t=.878		t=1.466	
희망직종	서비스직	39	4.26	.68	4.15	.63	4.00AB	.69	3.95	.89	3.85	.99	4.03AB	.74
	사무직	153	4.46	.57	4.26	.61	3.79B	.90	3.96	.90	3.95	.70	4.02AB	.64
	전문기술직	182	4.41	1.52	4.20	.66	3.91AB	.82	3.91	.90	3.86	.86	3.91B	.75
	교육연구직	76	4.45	.57	4.30	.54	4.12A	.83	4.10	.80	4.07	.82	4.21A	.57
	F값		F=.387		F=.824		F=2.736*		F=.745		F=1.362		F=3.397*	
집안내 경조사 참여	대체로참석	360	4.42	1.16	4.22	.63	3.92	.85	3.94	.90	3.94	.83	4.03	.71
	대체로 참석 안함	90	4.40	.56	4.28	.58	3.86	.84	4.03	.81	3.88	.76	3.93	.61
	t값		t=.039		t=.571		t=.311		t=.729		t=.367		t=1.336	

\*p<.05, \*\*p<.01 (A,B에 대한 표기는 Duncan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임)

으로 일치한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경조사예절 교육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와 현 예절 인식수준의 양자를 적절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배경변인별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7 참조) 혼인식과 문상 참석예절교육은 집안 내 경조사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생일/수연, 개업식, 승진/퇴임식 참석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자연·예체능전공집단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

## 2)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

대학에서의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교육내용은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4.42점) > ‘교육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4.23점) > ‘교육내용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4.01점) >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3.96점) > ‘교육 관련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3.92점) > ‘교육내용구성에는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3.91점)의 순을 나타냈다. 이 중 대학에서 배운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이 사회에서의 실제 상황에 적용가능 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는 대학에서의 예절교육 방안으로 교육 내용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요구된다고 한 장철선(2007)의 논의를 지지하는 측면이다. 이는 다가올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조사예절을 대학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정우와 김연화(1998)의 견해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응답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정우와 김연화(199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관심과 흥미는 있지만 가정에서도 배울 기회가 부족하고, 의례의 내용이 너무 전통적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확인되는 바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조사예절의 본질과 의미를 근간으로 하되 현대사회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조사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관련 시청각매체의 활용 그리고 이론과 실습의 병행 등을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9 참조) 교육내용 구성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 내용 관련정보와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은 여학생 집단과 향후 희망하는 직종이 교육연구직인 집단에서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교육 관련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4학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반영하였다.

## 3.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 및 경조사예절교육 요구의 관계

대학생들의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과 경조사예절교육 요구의 관계

<표 10>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 및 경조사예절교육 요구의 관계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경조사 예절 인식	경조사 예절교육 내용 요구	경조사 예절교육 방안 요구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1.00			
경조사예절 인식	.488***	1.00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요구	.246***	.347***	1.00	
경조사예절교육 방안 요구	.254***	.419***	.351***	1.00

\*\*\*p<.001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별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표 10>을 살펴보면 경조사예절 인식과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r=.488, p<.001$ ), 경조사예절교육 방안 요구와 경조사예절 인식( $r=.419, p<.001$ ),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요구와 경조사예절교육 방안 요구( $r=.351, p<.001$ ),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요구와 경조사예절 인식( $r=.347, p<.001$ ), 경조사예절교육 내용 요구와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r=.246, p<.001$ ), 경조사예절교육 방안 요구와 경조사 참석 중요성 인식( $r=.254, p<.001$ )의 관계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경조사 참석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경조사예절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가지며, 경조사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으로써 대학에서의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호 연관성에 의거해볼 때 대학에서는 경조사 참석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경조사예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엄문자·류미현, 2003: 135)하여 이를 인식으로 내면화하고 실행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생활의 영위 가운데 경조사 참석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황별 역할극이나 모의 실습 등의 교육 방안의 활용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직장인들이 경조사예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김선주(1997)의 지적은 앞으로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인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책무를 일깨우는 측면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학생들을 위한 경조사예절교육의 방향모색에 관한 결론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경조사 참석을 사회생활문화의 하나로 지속시켜나갈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생활 가운데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경조사문화가 상부상조와 인간적인 도리를 내재하고 있음을 물론 폭넓은 인간관계 영위를 위한 자기관리의 측면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경조사에 참석하는 근본정신이나 마음가짐 보다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인 격식이나 외형만을 우선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상부상조와 인간적인 도리가 조화롭게 추구되는 경조사 참석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들이 사회 내 친소관계의 실리적 중요정도에만 얽매어 지금의 세태와 같이 형식적 경조 참석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경조사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성의를 담아 자신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조사 참석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조비 지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경조사비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서 경조사비가 상호 호혜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경조사비 지출 자체의 변화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제반 경조사문화까지 통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경조사문화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 확립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경조사 참석 시 수행하게 되는 예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상이나 혼인식 참석예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간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인식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 경조사예절의 인식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모습도 존재하였다. 이제 대학에서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상황별 경조사예절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집안 내 경조사 참여여부가 대학생의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및 경조사예절 인식에 일부 차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가족생활의 변화로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만남과 대화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정에게 사회생활의 경조사예절교육까지 전적으로 일임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대학은 가정과 더불어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보다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생활예절 관련 교양교과목 내에서 사회생활의 경조사교육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에서의 경조사예절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문상 참석예절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병, 혼인식, 승진/퇴임식, 생일/수연, 개업식의 순으로 참석예절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예절교육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교육내용이 실제 상황에 적용가능 해야 된다는 유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경조사예절교육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는 물론 이들의 경조사예절 인식의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다가올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예절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학

생들의 성별, 전공별, 희망직종별 특성화된 생활예절 교양교과목의 선택을 모색하고 관련 경조사예절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경조사 참석의 중요성 인식, 경조사예절 인식, 경조사예절교육 요구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경조사 참석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경조사예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내용을 계획하며 경조사 참석상황에 관련된 정보 제공, 시청각매체(비디오, 인터넷 등)의 활용, 역할극이나 모의실습 병행 등의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임의로 표집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넓히는 노력이 요구되며 배경변인으로 대학생의 직장경험 유형이나 기간별 경조사예절 인식과 교육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다. 앞으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로 보다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경조사예절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한 경조사예절교육 모델 개발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건국대학교(2007). [www.konkuk.ac.kr](http://www.konkuk.ac.kr)
- 2) 고려대학교(2007). [www.korea.ac.kr](http://www.korea.ac.kr)
- 3) 국민대학교(2007). [www.kookmin.ac.kr](http://www.kookmin.ac.kr)

- 4) 김선주(1997). 직장인의 예절의식과 생활예절 실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세환(2003). 친절과 에티켓. 서울 : 학문사.
- 6) 김시월(1996). 관혼상제를 통해 본 서울 시민 공동체의식-친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7, 49-97.
- 7) 김영숙(1996). 도시가계의 경조비지출구조 분석. 소비자학연구 7(2), 1-22.
- 8) 김재식(2002).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11(2), 25-42.
- 9) 김혜연, 김미성(2001). 경조비에 대한 의식 및 지출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9(1), 65-80.
- 10) 김혜영, 최인려(2006). 비즈니스와 생활예절.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11) 김희경(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도영태, 김순희(2005). 직장예절. 서울 : 영진미디어.
- 13) 동덕여자대학교(2007). www.dongduk.ac.kr
- 14) 박명숙, 류정순(1998).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추이와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13-24.
- 15) 생활취업포털 파이드잡·온라인 리서치 엠브레인(2007). M25.
- 16) 서울특별시(1999).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 17) 성균관대학교(2007). www.skku.ac.kr
- 18) 성신여자대학교(2007). www.sungshin.ac.kr
- 19) 숙명여자대학교(2007). www.sookmyung.ac.kr
- 20) 엄문자, 류미현(2000).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지식, 태도와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2), 101-111.
- 21) 엄문자, 류미현(2003). 매너교육이 대학생들의 지식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6(2), 127-137.
- 22) 엄문자, 류미현(2006). 대학생들의 경조사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혼례·상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9(1), 37-46.
- 23) 엄문자 외(2002). 생활문화와 예절.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24) 연합뉴스(2007). 전국가구 작년 경조비 7조 3천억. www.yonhapnews.co.kr
- 25) 유진그룹인력개발팀(2007). 비즈니스 매너 가이드.
- 26) 이영금(2005). 대학생의 예절 및 매너교육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정우, 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1(2), 3-24.
- 28) 이정우, 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29) 이정학, 장태선, 박명옥(2006). 현대사회와 매너. 서울 : 기문사.
- 30) 임송국, 김선애(2006). 친절서비스 실무. 서울 : 홍익출판사.
- 31) 임혜경, 정지영(1997).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1-20.
- 32) 장철선(2007). 대학생의 예절·다도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 경조비 실태조사.
- 34) 정은선(2005).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정지영, 주영애, 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여성교양

- 학회지 3, 307-333.
- 36) 중앙대학교(2007). [www.cau.ac.kr](http://www.cau.ac.kr)
- 37) 차석빈, 허윤정(2003). 펼치면 매너가 보인다. 서울 : 현학사.
- 38) 최배영(2002). 생활예절과 자기표현. 서울 : 신광출판사.
- 39) 채용식, 박재완, 주영환(2001). 매너학. 서울 : 학문사.
- 40) 통계청(2007).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http://www.kosis.kr>
- 41) 하진영, 오선영(2007). 영화로 보는 매너와 에티켓. 서울 : 파워북.
- 42)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 43) 한양대학교(2007). [www.hanyang.ac.kr](http://www.hanyang.ac.kr).
- 44) 磯田裕子(2005). 冠婚喪祭のマナー. 東京 : 世界文化社.
- 접수 일 : 2008년 4월 13일
  - 심사 일 : 2008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7일